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4일 06시 09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건설	3
전남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여수시에 문 열다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전남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여수시에 문 열다

2021.04.01 조회수 245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담당자 고충범 연락처 061-659-3639

- 31일 개소식 열려...4월 1일부터 평일 오후 4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
- 학동 소재 212㎡ 면적, 실내 휴식공간·여성휴게실·회의실·화장실 갖춰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동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고 3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이동노동자 관련 대표자 등 20여 명 내외로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인사말씀, 안마의자 기증식, 시설관람, 헌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식스기획(식스대리운전)에서 이동노동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6백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개소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동노동자분들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동노동자 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4월 1일부터 평일 오후 4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12㎡(64평) 면적에 실내 휴식공간, 여성휴게실, 회의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약 3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용가능 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에 나선 여수시는, 올해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31일 개소식을 열고 4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0. 전남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여수시에 문 열다.jpg (6640 hit/ 3.70 M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코로나19 마을방역” 블루엔딩 정신건강...

다음글

여수시, ‘종화지구 새뜰마을사업’...“4월부터 본격...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